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별호】

주체 103
(2014). 1
6
월요일
음력 12. 6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자랑찬 년륜을 아로새길 주체
103(2014)년이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새
해 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겨레
의 가슴가슴은 지금 무한한 환희
와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
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
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
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
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
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 민족의 안전과 평화
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데 대한 문제, 북남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 등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
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
업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
에서 제시하신 이 강령적과업들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 조성된 정
세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정확한 로선이며 온 겨레를 울
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
진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
쟁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다.

사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올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
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
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
과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분렬
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
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
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
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
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을 위하여 그리도 마음씨오
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문건도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
된 문건이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
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민족자주의
선언, 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
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었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쌍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

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유훈을 받들어 올
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
에서 밝혀주시 것처럼 나라의 통일
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
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
주체의 힘에 의거하지 않고 외세
에 의존해서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분렬자체가 외세
에 의하여 강요된것이고 조국통
일이 근 70년이 되도록 실현되
지 못하고있는것도 주요하게 외
세의 집요하고 끈질긴 방해책동
에 기인된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나라와 민
족문제를 옳바로 해결한 실례
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외세에
게는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
에 개입하여 저들의 이익을 실현
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야욕
만이 있을뿐이다. 민족의 자주성

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문제
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예측의 불가미를 스스로 목
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
은것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
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실질적
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
다. 그런것만큼 조국통일은 오
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
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
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
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
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
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
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
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
히 리행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
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국제공
조》를 청탁하는것은 민족의 운
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이다.
지나온 한해가 보여주느바와 같
이 《외세공조》, 《국제공조》
놀음이 북남관계에 초래할것은
불신과 대결의 심화이고 전쟁위

험의 증대이다.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고 동
족과 힘을 합치는데 통일이 있
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
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마땅
히 민족자주의 립장, 우리 민족
끼리의 립장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
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현
시기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
로 나선다.

오늘도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
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
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
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
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변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
되고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
적으로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
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
다 귀중한것은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
는다면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평화수호
투쟁은 민족의 삶의 터전을 지키
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승리는 민족적자주
권을 목숨바쳐 고수하려는 우리
겨레에게 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
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미국도 결
코 무사할수 없다. 온 겨레는 평
화수호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
민족의 안전과 삶의 터전을 엄
중히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철대로 허용
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
야 한다.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는것은 자주통
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현실적요구이다.

북남관계는 나라들사이의 관계
가 아니라 피를 나눈 동족사이
의 관계, 함께 통일로 가는 우
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북남관
계의 발전을 떠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

져 살고있는것만도 가슴아픈 일
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
시하는것은 용납될수 없으며 그
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
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출뿐
이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
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
과 《종북》소동을 벌리지 말아
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
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
를 기울이고 북남관계개선에로
나와야 한다. 공화국은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
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
할것이다.

오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
연히 어려운 시련과 난관이 가
로놓여있지만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
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통일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참다운 애
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
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
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
쳐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
야 할것이다.

명백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신년사에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올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
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
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
다.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
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
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
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
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
국통일유훈은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
도밑에 가까운 앞날에 반드
시 실현되고야말것이다.

우리 조국통일범민족청년
학생련합 북측본부안의 모
든 일꾼들은 새해에 애국적
인 남녘의 청년학우들과 굳
게 손잡고 하루빨리 북남관
계를 개선하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는데 한몫 다
바쳐나가겠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 의장 허영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한길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나라
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
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
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
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
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 뜻
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겨레가 올해 조국통일위업
수행의 길에서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와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
혀주는 정당하고 현명한
말씀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렬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근 70년세월이 흘렀다. 이
기나긴 나날들은 조국통일
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조
국통일운동을 벌려온 이 나
날들속에 우리 겨레모두는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

장에 확고히 서서 민족공
조를 실현할 때에만 민족
화합도,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철
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신것 처
럼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
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
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
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
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
할수 있다.

력사의 교훈은 분렬주의
세력, 동족대결분자들이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사
대매국행위로써는 화해도,
통일도 이룩할수 없으며 동
족대결과 전쟁의 검은 구름
만 짙어지게 된다는것을 보
여주고있다.

우리 겨레에게는 민족공

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
선언들이 있으며 우리 민족
끼리의 기치아래 펼쳐졌던
6.15통일시대에 민족화합과
통일에국위엄실현과정에 이
룩하였던 좋은 성과와 경험
들이 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모든 일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
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3대원칙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우리 녀
맹중앙위원회안의 일꾼들
도 크나큰 걱정속에 접하
였다.

특히 민족의 안전
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데 대한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우리
녀성들에게 평화수호의 자각
과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주
고있다. 우리 녀성들은 누구
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
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
히 서서 공동선언들을 성실
히 리행하기 위한 힘찬 투
쟁을 벌려나가겠다. 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자주통일의 밝은 앞날을 앞
당겨오는데 적극 이바지하
겠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리금철

상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
고있다. 전쟁이 터지면 자신
은 물론이고 남편들과 귀여
운 자식의 운명과 미래에까

평화수호에 녀성들도 한몫

지 무서운 재난이 닥칠수
있기에 공화국의 녀성들은 반
전전쟁의 목소리를 높이 올
려왔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 전

희망찬 새해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보니 지
나온 6.15시대가 못건디게
그리워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
해주시고 북과 남이 온 겨
레와 세계앞에 엄숙히 서
야만 6.15공동선언의 기
치따라 밝아온 6.15시대
였다.

몹같은 그 나날 북과 남
의 우리 청년들도 백두와 금
강산, 광주와 부산에서 서
로 열싸안고 《조국통일 만
세!》를 높이 부르며 통일조
국의 앞날을 축복하였다.

쟁위험은 갈수록 높아만가
고있다. 지난 한해에만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
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우리 겨레의 안
전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
왔다.

평화는 바람다고 해서 저
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

대결을 중지하고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그러던 북남관계가 불신
과 대결의 관계로 다시 돌
아가고 침예한 긴장이 계
속 감돌고있는것은 불미스
러운 일이고 우리 겨레에
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 아
닐수 없다.

현시기 나라의 분렬을 종
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는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는것

이다. 온 겨레가 단합된 투쟁
으로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
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켜
야 한다.

우리 녀성들은 평화
수호를 위해 새해에
더욱 힘찬 투쟁을 전
개해나가겠다. 하여 이 땅
을 평화의 아름다운 강산으
로 만드는데서 녀성들의 본
분을 다해나가겠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
위원회 부원 김광숙

이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
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이다.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
다면 민족의 보금자리인 삼
천리강토와 우리 겨레의 삶
이 파괴될것이며 그로 인해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통일
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뿐
이다.

동족대결이 초래할 이 비
국적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이 무모한 동족
대결과 《종북》소동을 벌
리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
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
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고 북남관계개선에로 나와야
한다.

북과 남이 지난날의 대결
과 불신의 악순환을 끝장내
고 서로 화해하고 단합한다
면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지
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